

## 고대 중국의 시호(諡號)와 단어의 다의적 특성

이 강 재\*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단어의 다의성과 부정적<br>의미의 시호 |
| II. <시법해>와 춘추전국시대의 시호      | V. 맺음말                     |
| III. 부정적인 의미의 시호에 대한<br>이해 |                            |

### I. 들어가는 글

본고는 고대 중국의 시호, 특히 춘추전국시대 제후의 시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함과 동시에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를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시호는 동양적인 특수한 호칭이다. 영어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 “The Late ...”, 즉 우리말로 할 때 ‘故 ...씨’라는 의미의 호칭을 쓴다. 시호는 중국의 전통시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단 시호가 정해지고 나면 바꿀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생전의 행동을 규제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유인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이야기한다. 가령, 《孟子》에는 맹자가 堯임금이나 舜임금과 같은 어진 정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로 幽임금과 厲임금을 언급한 다음 구절이 있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그 백성들에게 포악함이 심하면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것이 심하지 않으면 자신은 위태롭게 되고 나라는 영토가 깎이게 된다. 일단 그러한 군주에 대해 ‘幽’나 ‘厲’라는 시호를 붙여주고 나면 비록 부모를 사랑하는 효성스러운 자손이라도 백대가 지나도록 바꿀 수 없다.<sup>1)</sup>

위에서 맹자가 강조하는 것은, 군주에게 죽은 후에 부여되는 시호가 한번 부정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절대 바꿀 수 없으므로 살아있을 때에 정치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임금과 여임금은 주나라 시대 포악한 정치를 행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군주로 하나라의 걸임금이나 상나라의 주임금과 함께 중국 고대의 역사에서 폭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맹자가 강조한 것처럼 시호란 한번 정해지면 후손이 바꿀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sup>2)</sup> 그러나 후인들이 선인을 존중하여 만들어내는 시호가 이처럼 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시호의 제정에 대한 의문은 맹자보다 앞선 시기인 공자 시대에도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자공이 “위(衛)나라 대부였던 공문자(孔文子)는 어째서 ‘文’이라는 시호가 붙게 되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文’이라고 시호를 붙인 것이다.”<sup>3)</sup>

- 
- 1) 《孟子·離婁上》：“暴其民甚，則身弑國亡，不甚，則身危國削，名之曰‘幽’·‘厲’，雖孝子慈孫，百世不能改之。”
  - 2) 한번 정해진 시호를 다시 바꾸는 일이 후대에는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춘추전국시대 제후의 시호를 기준으로 할 때 시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論語·公冶長》：“子貢問曰，孔文子何以謂之文也？子曰，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文也。”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공문자가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인물이므로<sup>4)</sup>, 그의 시호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긍정적인 의미의 ‘文’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자는 공문자가 비록 생전의 행동에 부정적인 면이 많았을지라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기를 즐겨했다는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시호를 정했다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살아있을 때의 행동을 근거로 시호를 정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위 대화만을 가지고 볼 때, 공자의 제자가 어떤 원칙에 의해 시호를 정하는 것인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공자 당시까지는 시호를 정하는 원칙에 대해 아직 모두가 공통적인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구절을 보면 공자 당시에 군주의 잘못을 겉으로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진(陳) 나라의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나라 소공이 예를 아는 지문자 공자는 “예를 압니다.”라고 답하였다. 공자가 그 자리를 떠난 후 그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무마기에게 인사를 한 후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자기들끼리 패거리 짓기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군자도 패거리를 짓는가요? 소공이 오나라에서 같은 성을 가진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고는 오맹자라고 불렀는데, 소공이 예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예를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마기가 공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공자는 “나는 운이 좋구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니.”라고 하였다.<sup>5)</sup>

- 4) 주희의 논어집주 및 정약용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 공자와 동시대인이었던 공문자(이름 圉)의 악행이 설명되어 있다. 주희는 공자가 ‘文’이라는 시호에 대해 설명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약용은 동시대의 대부를 차마 비방할 수 없어서 시범을 들어 설명할 뿐 실상을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 5) 《論語·述而》：“陳司敗問昭公知禮乎，孔子曰，知禮。孔子退，揖巫馬期而進之，曰，吾聞君子不黨，君子亦黨乎？君取於吳爲同姓，謂之吳孟子。君而知禮，孰不知禮？巫馬期以告。子曰，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

공자가 살았던 주대의 법제에 의하면 동성끼리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나라에서 같은 姬姓의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오희’라고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동성임이 드러나므로 ‘오맹자’라고 불러 마치 동성이 아닌 것처럼 한 것이다. 공자는 이를 알았지만 자기 나라의 군주 잘못을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위처럼 대응한 것이다. 즉 공자는 노나라 군주인 소공이 잘못을 했을 때조차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예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부여하는 시호를 통해 앞선 군주의 잘못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적절한 행동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가능하다. 또한 이처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호를 부여하는 것에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나쁜 의미의 시호 제정이 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해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 먼저 현재 남아있는 고대 제후의 시호에 대한 가장 이른 저작인 <시법해>를 근거로 고대의 시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춘추전국시대 주요 제후국의 제후에게 부여된 시호를 살펴보면 이 시호에서 의미상 긍정적 의미를 갖는 시호와 부정적 혹은 중립적 의미를 갖는 시호를 찾아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애초부터 시호를 부여받지 못한 군주의 경우도 아울러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의 과정에서 발견된 나쁜 의미의 시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쁜 의미의 시호가 원래부터 나쁜 의미를 갖는 단어였는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변한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나쁜 의미의 시호가 부여된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론을 시도할 것이다.

## II. <시법해>와 춘추전국시대 제후의 시호

전통적으로 시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周나라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逸周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책이 周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춘추시대 이후 나온 책이라고는 하지만,<sup>6)</sup> 이 중의 <諡法解>는 당시의 시호를 정하는 원칙이나 각각의 시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 보기에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시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諡’는 행동의 자취이며, ‘號’는 공적을 겉으로 나타낸 것이다.<sup>7)</sup>

위의 설명에 따를 때, ‘諡’와 ‘號’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물론 ‘시’란 행동의 자취이고 ‘호’란 공적을 겉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위의 설명만으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의 설명을 더 따라갈 때, 먼저 ‘神’, ‘聖’, ‘帝’, ‘皇’, ‘王’, ‘公’, ‘侯’ 등 일곱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서 ‘簡’, ‘文’, ‘武’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호라고 언급하는 말이 설명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해한다면 ‘號’는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을 떠올릴 수 있고 ‘諡’는 죽은 이후에 붙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시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환공(桓公)’이라고 할 때, ‘桓’은 ‘諡’에 해당하고 ‘公’은 ‘號’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는 내용은 엄밀하게 말할 때 ‘諡’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공’이라는 호칭에서 보듯이 ‘시’ 뒤에 ‘호’를 넣어 함께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령 그동안 일반적으로 불려온 ‘시호’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불려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를 따라 ‘시호’라고 쓰기로 한다.<sup>8)</sup>

6)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薛金玲의 <<逸周書·諡法>>時代辨析>을 참고할 것.

7) “諡者, 行之跡也. 號者, 功之表也.”

8) 이 때문에 본고는 특별히 오해가 없는 한 <시법해>에서 말하는 ‘시’의 개념을

시호를 정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시법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큰 행동(大行)을 하게 되면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동(小行)을 하게 되면 작은 이름을 받게 된다. 행동은 자기에게서 나오고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다.<sup>9)</sup>

여기서 말하는 큰 행동과 작은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를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해되어 왔으므로 이를 따르다면 시호란 어떤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행동이 어떤가, 즉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 그가 죽은 이후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이름이다.

<시법해>에는 모두 다음 91종의 시호가 제시되어 있다.

簡, 文, 武, 恭, 明, 欽, 定, 德, 襄, 釐, 憲, 懿, 孝, 考, 齊, 康, 成, 穆, 傾, 昭, 胡, 剛, 靜, 平, 景, 貞, 威, 桓, 思, 慧, 元, 莊, 夷, 懷, 敬, 丁, 烈, 翼, 肅, 戴, 靈, 殤, 隱, 悼, 刺, 荒, 潛, 哀, 幽, 魏, 煬, 甄, 勝, 圉, 宣, 使, 愨, 勇, 商, 譽, 度, 安, 白, 聲, 厲, 知, 穰, 質, 戾, 良, 醜, 類, 躁, 順, 感, 忠, 推, 紹, 堅, 直, 止, 誇, 長, 克, 愛, 節, 比, 易, 謬, 願, 匡.

그런데 각각의 시호에 대해 <시법해>에서는 그 시호가 제정된 한 가지 의미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 해당 시호를 제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가령, ‘簡’에 대해서는 “壹德不解(한결같은 덕을 지키면서 나태하지 않았음)”, “平易不疵(치우침 없고 간략하며 결점이 없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 ‘簡’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는 모두 죽은 제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武’에 대해서는 “克定禍亂(환란을 평정할 수

‘시호’라고 부르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9) “是以大行受大名, 細行受小名; 行出於己, 名生於人.”

있었음)”와 “大志多窮(큰 뜻을 품고 있으나 곤궁함이 많았음)”이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武’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진정 어떤 군주에 대해 ‘武’라는 시호를 내렸을 때 그 군주의 어떤 측면이 강조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고대 중국어의 대부분 어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다의성(多義性)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나쁜 의미의 시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과도 관련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춘추전국시대 주요국 제후에게 부여된 시호를 살펴보면<sup>10)</sup> <시법해>에 제시한 91종의 시호와 비교하여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 제후들에 부여된 시호와 해당 시호를 사용한 제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1) 簡 : 簡公-燕, 春秋20<sup>12)</sup> / 簡公-鄭, 春秋14 / 簡公-齊, 春秋14 / 簡公-秦, 戰國04 / 簡公-燕, 戰國03 / 簡王-楚, 戰國01

10) 여기서 제시한 춘추전국시대 주요국 제후의 시호는 顧德融, 朱順龍의 《春秋史》와 楊寬의 《戰國史》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춘추시대의 경우 B.C.770에서 B.C.453까지 魯, 齊, 晉, 秦, 楚, 宋, 鄭, 衛, 燕 등 9 개국의 시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시대의 경우 B.C.481에서 B.C.221까지 秦, 魏, 韓, 趙, 楚, 燕, 齊 등 7개국의 시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시기에 중복되는 나라는 년도가 일부 중복된다.

11) 이는 시호의 한글음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시호로 볼 수 없는 제후의 경우 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때문에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것과 小子侯(晉, 春秋07), 始皇帝(秦, 戰國14)처럼 시호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배제하였다. 또한 두 글자의 시호를 사용한 경우 두 글자 모두에 각각 포함시켰으며, 한 나라에서 두 군주에게 동일한 시호를 부여한 경우 순서에 따라 1, 2 등의 숫자를 시호 뒤에 병기하였다.

12) 簡公-燕, 春秋20의 경우 春秋時代 燕나라의 20번째 군주인 簡公을 가리킨다. 이하에 나온 표기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이다.

- (2) 康：康公-秦,春秋10 / 康王-楚,春秋11 / 康公-齊,戰國01
- (3) 頃：頃公-齊,春秋09 / 頃公-晉,春秋20 / 頃侯-燕,春秋01 / 頃襄王-楚,戰國08
- (4) 景：景公-宋,春秋16 / 景公-齊,春秋12 / 景公-秦,春秋13 / 景公-晉,春秋15 / 景侯-燕,春秋11 / 景湣王-魏,戰國07 / 景侯-韓,戰國02
- (5) 敬：敬侯-趙,戰國05
- (6) 共：共公-宋,春秋13 / 共公-燕,春秋18 / 共公-鄭,春秋19 / 共公-秦,春秋11 / 共王-楚,春秋10 / 厲共公-秦,春秋17
- (7) 戴：戴公-宋,春秋01
- (8) 代：代王-趙,戰國13
- (9) 德：德公-秦,春秋06
- (10) 悼：悼公-魯,春秋15 / 悼公-燕,春秋17 / 悼公-衛,春秋21 / 悼公-鄭,春秋11 / 悼公-齊,春秋13 / 悼公-秦,春秋16 / 悼公-晉,春秋17 / 悼襄王-趙,戰國11 / 悼王-楚,戰國03 / 悼子-齊,戰國02
- (11) 厲：厲共公-秦,春秋17 / 厲公-鄭,春秋03 / 厲公-晉,春秋16
- (12) 釐：釐王-韓,戰國10 / 安釐王-魏,戰國06
- (13) 穆：穆公-宋,春秋04 / 穆公-衛,春秋10 / 穆公-鄭,春秋08 / 穆公-秦,春秋09 / 穆王-楚,春秋08 / 穆侯-燕,春秋04
- (14) 武：武公-宋,春秋02 / 武公-燕,春秋13 / 武公-衛,春秋01 / 武公-鄭,春秋01 / 武公-秦,春秋05 / 武公-晉,春秋06 / 武王-楚,春秋04 / 武成王-燕,戰國10 / 武靈王-趙,戰國08 / 武王-秦,戰國10 / 武子-韓,戰國01 / 武侯-魏,戰國02
- (15) 文：文公-魯,春秋08 / 文公-宋,春秋12 / 文侯-晉,春秋01 / 文公-燕,春秋14 / 文公-衛,春秋08 / 文公-鄭,春秋07 / 文公-秦,春秋02 / 文公-晉,春秋11 / 文王-楚,春秋05 / 文公-齊,戰國06 / 文侯-魏,戰國01 / 文侯-韓,戰國04 / 惠文王-趙,戰國09 / 惠文王-秦,戰國09 / 孝文王-秦,戰國12 / 文公-燕,戰國05
- (16) 閔：閔公-魯,春秋06 / 閔公-宋,春秋07 / 閔公-燕,戰國02
- (17) 湣：湣王-齊,戰國09 / 景湣王-魏,戰國07
- (18) 殤：殤公-宋,春秋05 / 殤公-衛,春秋13
- (19) 宣：宣公2-燕,春秋10 / 宣公-魯,春秋09 / 宣公-宋,春秋03 / 宣公-衛,春秋04 / 宣公-齊,春秋16 / 宣公-秦,春秋07 / 宣侯1-燕,春秋05 / 宣王-齊,戰國08 / 宣王-楚,戰國05 / 宣惠王-韓,戰國08

- (20) 成 : 成公-魯, 春秋10 / 成公-宋, 春秋10 / 成公-衛, 春秋09 / 成公-鄭, 春秋12 / 成公-秦, 春秋08 / 成公-晉, 春秋14 / 成王-楚, 春秋07 / 成侯-趙, 戰國06 / 成公-燕, 戰國01 / 武成王-燕, 戰國10 / 孝成王-趙, 戰國10
- (21) 聲 : 聲公-鄭, 春秋17 / 聲王-楚, 戰國02
- (22) 昭 : 昭公-魯, 春秋12 / 昭公-宋, 春秋11 / 昭公-宋, 春秋17 / 昭公-燕, 春秋12 / 昭公-鄭, 春秋04 / 昭公-齊, 春秋06 / 昭公-晉, 春秋19 / 昭王-楚, 春秋15 / 昭侯-晉, 春秋02 / 昭王-燕, 戰國08 / 昭王-魏, 戰國05 / 昭王-秦, 戰國11 / 昭侯-韓, 戰國07
- (23) 肅 : 肅王-楚, 戰國04 / 肅侯-趙, 戰國07
- (24) 鄂 : 鄂侯-晉, 春秋04
- (25) 安 : 安釐王-魏, 戰國06
- (26) 哀 : 哀公-魯, 春秋14 / 哀公-鄭, 春秋18 / 哀公-秦, 春秋14 / 哀侯-燕, 春秋02 / 哀侯-晉, 春秋05 / 哀侯-韓, 戰國05
- (27) 襄 : 襄公-魯, 春秋11 / 襄公-宋, 春秋09 / 襄公-燕, 春秋08 / 襄公-衛, 春秋15 / 襄公-鄭, 春秋10 / 襄公-齊, 春秋03 / 襄公-秦, 春秋01 / 襄公-晉, 春秋12 / 襄王-魏, 戰國04 / 襄王-齊, 戰國10 / 襄王-韓, 戰國09 / 襄子-趙, 戰國01 / 悼襄王-趙, 戰國11 / 頃襄王-楚, 戰國08 / 莊襄王-秦, 戰國13
- (28) 易 : 易王-燕, 戰國06
- (29) 烈 : 烈侯-趙, 戰國04 / 烈侯-韓, 戰國03 / 孝烈王-楚, 戰國09
- (30) 靈 : 靈公-衛, 春秋16 / 靈公-鄭, 春秋09 / 靈公-齊, 春秋10 / 靈公-晉, 春秋13 / 靈王-楚, 春秋13 / 靈公-秦, 戰國03 / 武靈王-趙, 戰國08
- (31) 寧 : 寧公-秦, 春秋03
- (32) 元 : 元公-宋, 春秋15
- (33) 威 : 威王-齊, 戰國07 / 威王-楚, 戰國06
- (34) 幽 : 幽王-楚, 戰國10
- (35) 隱 : 隱公-魯, 春秋03
- (36) 懿 : 懿公-燕, 春秋15 / 懿公-衛, 春秋07 / 懿公-齊, 春秋07 / 懿侯-韓, 戰國06
- (37) 莊 : 莊公1-衛, 春秋02 / 莊公1-齊, 春秋01 / 莊公2-衛, 春秋18 / 莊公2-齊, 春秋11 / 莊公-魯, 春秋05 / 莊公-宋, 春秋06 / 莊公-燕, 春秋07 / 莊公-鄭, 春秋02 / 莊王-楚, 春秋09 / 莊襄王-秦, 戰國13
- (38) 定 : 定公-魯, 春秋13 / 定公-衛, 春秋11 / 定公-鄭, 春秋15 / 定公-晉, 春秋21

- (39) 鄭：鄭侯-燕,春秋03  
 (40) 躁：躁公-秦,戰國01  
 (41) 出：出公1-衛,春秋17 / 出公1-衛,春秋20 / 出公-晉,春秋22 / 出子-秦,春秋04 / 出子-秦,戰國06  
 (42) 平：平公-宋,春秋14 / 平公-燕,春秋19 / 平公-齊,春秋15 / 平公-晉,春秋18 / 平王-楚,春秋14  
 (43) 獻：獻公1-衛,春秋12 / 獻公1-衛,春秋14 / 獻公-燕,春秋21 / 獻公-鄭,春秋16 / 獻公-晉,春秋09 / 獻公-秦,戰國07 / 獻侯-趙,戰國03  
 (44) 惠：惠公-魯,春秋02 / 惠公-燕,春秋16 / 惠公-衛,春秋05 / 惠公-齊,春秋08 / 惠公-晉,春秋10 / 惠公-秦,春秋15 / 惠王-楚,春秋16 / 惠公-秦,戰國05 / 惠文王-趙,戰國09 / 惠文王-秦,戰國09 / 惠王-燕,戰國09 / 惠王-魏,戰國03 / 桓惠王-韓,戰國11 / 宣惠王-韓,戰國08  
 (45) 和：和子-齊,戰國03  
 (46) 桓：桓公1-燕,春秋06 / 桓公2-燕,春秋09 / 桓公-魯,春秋04 / 桓公-宋,春秋08 / 桓公-衛,春秋03 / 桓公-齊,戰國05 / 桓公-齊,春秋04 / 桓公-秦,春秋12 / 桓子-趙,戰國02 / 桓公-燕,戰國04 / 桓惠王-韓,戰國11  
 (47) 懷：懷公-秦,戰國02 / 懷王-楚,戰國07  
 (48) 孝：孝公-魯,春秋01 / 孝公-燕,春秋22 / 孝公-齊,春秋05 / 孝侯-晉,春秋03 / 孝公-秦,戰國08 / 孝文王-秦,戰國12 / 孝成王-趙,戰國10 / 孝烈王-楚,戰國09 / 孝王-燕,戰國11  
 (49) 僖：僖公-魯,春秋07 / 僖公-鄭,春秋13 / 僖公-齊,春秋02

위에 제시한 춘추전국시대 주요국 제후의 시호를 <시법해>에서 제시한 91종의 시호와 비교하면, <시법해>에 제시된 시호 중 실제 춘추전국시대 주요국 제후의 시호로 사용된 예는 39개에 불과하다. 또 제후의 시호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 52종에 이르고 있으며, 반대로 <시법해>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후의 시호에 쓰인 시호에도 “代, 閔, 鄂, 寧, 鄭, 出, 獻, 惠, 和, 僖”의 열 가지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후 시호 사용과 <시법해> 제시 일치 (39개) : 簡, 康, 頃, 景, 敬, 共, 戴, 德, 悼, 厲, 釐, 穆, 武, 文, 潛, 殤, 宣, 成, 聲, 昭, 肅, 安, 哀, 襄, 易,

烈, 靈, 元, 威, 幽, 隱, 懿, 莊, 定, 躁, 平, 桓, 懷, 孝.<sup>13)</sup>

제후 시호에 사용했지만 <시법해>에 없는 것 (10종) : 代, 閔, 鄂, 寧, 鄭, 出, 獻, 惠, 和, 僖.

제후 시호에 쓰이지 않았는데 <시법해>에만 있는 것 (52종) : 愨, 感, 剛, 穰, 甄, 堅, 考, 誇, 匡, 克, 度, 刺, 良, 戾, 類, 謬, 明, 白, 比, 思, 使, 商, 紹, 順, 勝, 愛, 煬, 圉, 譽, 勇, 願, 魏, 夷, 翼, 長, 節, 靜, 貞, 丁, 齊, 知, 止, 直, 質, 醜, 推, 忠, 憲, 慧, 胡, 荒, 欽.

이처럼 <시법해>에 설명한 의미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과 <시법해>에서 제시한 시호와 실제 제후들에게 부여된 시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시호 제정의 의미와 각 시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4)</sup>

### III. 부정적인 의미의 시호에 대한 이해

시호에 쓰인 단어는 죽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것, 부정적인 평가인 것, 중립적인 평가인 것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시법해>에서 제시한 한 것으로 제후의 시호에도 실제 쓰인 시호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文’을 들 수 있다. ‘文’은 춘추전국 시대 16 제후에게 부여된 시호인데<sup>15)</sup>, <시법해>에서는 “천지를 잘 다스림

13) <시법해>에서 제시한 ‘頃’, ‘共’, ‘潛’이 제후의 시호에 쓰인 ‘頃’, ‘恭’, ‘潛’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함.

14) 위 비교 결과는 <시법해>라는 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이 책이 전국시대에 출현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제후의 시호에 쓰였는데도 이 책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책이 시호를 연역적으로 나열한 것이 이미 쓰인 시호를 귀납한 것이 아니어서 전국 시대 이후에 출현한 서적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15) 文을 시호로 한 제후로는, 文公(魯,春秋08), 文公(宋,春秋12), 文公(燕,戰國05),

(經緯天地)”, “넓고 두터운 도덕을 가짐(道德博厚)”, “열심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함(學勤好問)”,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함(慈惠愛民)”, “백성을 가엽게 여기고 은혜롭게 대우함(溥民惠禮)”의 다섯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바로 《논어》에서 ‘孔文子’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열심히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음”<sup>16)</sup>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의 대표적인 예로 ‘殤’을 들 수 있다. ‘殤’은 보통 나이 2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데, <시법해>에서는 “일찍 죽어(가정을) 이루지 못함(短折不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죽음(未家短折)”이라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제후 중 殤公은 B.C.719년에서 B.C.710년까지 어린 나이에 재위에 있었던 宋나라 제후가 있는데, 그는 재위 10년째에 송나라의 華督에게 시해 당했다. 또 B.C.558년부터 B.C.546년까지 재위에 있었던 衛나라 殤公 역시 어린 나이에 신하들에 의해 獻公을 몰아내고 제후로 추대되었다가 다시 獻公에게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은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殤’이라는 시호를 쓴 것일 뿐, 그의 생전 행적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기 위해 이런 시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의 대표적인 것으로 ‘幽’를 들 수 있다. 앞서 <시법해>에서는 이 시호에 대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지위에 오름(蚤孤有位)”, “꼭 막히어 통하지 않음(壅遏不通)”, “제사와 일상을 어지럽힘(動祭亂常)”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지위에 오름”이라는 뜻은 반드시 부정적이기 보다는 중립적인 의미라

文公(燕,春秋14), 文公(衛,春秋08), 文公(鄭,春秋07), 文公(秦,春秋02), 文侯(晉,春秋01), 文公(晉,春秋11), 文王(楚,春秋05), 文侯(魏,戰國01), 文侯(韓,戰國04), 惠文王(趙,戰國09), 文公(齊,戰國06), 惠文王(秦,戰國09), 孝文王(秦,戰國12)이었다.

16) 《論語·公冶長》의 “敏而好學, 不恥下問”을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뒤 두 가지의 의미항목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앞서 맹자가 언급한 대표적인 폭군의 한 사람인 周나라 군주 ‘幽王’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되어 왔다.<sup>17)</sup>

또한 시호에 쓰인 단어의 의미항목 중에는 부정적인 나쁜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의 단어도 있다. 가령 12명의 제후 시호에 쓰인 ‘武’는 “강직하고 이치에 바르다(剛彊直理)” 혹은 “환란을 평정할 수 있다(克定禍亂)”라는 긍정적인 의미항목 뿐만 아니라 “큰 뜻으로 곤궁할 때가 많다(大志多窮)”라는 의미항목도 가지고 있다.<sup>18)</sup> 물론 강직하고 이치에 바르거나 환란을 평정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이미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곤궁할 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의 부정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武’가 중립적인 의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武’라는 고대 중국어 단어 자체가 갖고 다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15명의 제후 시호에 쓰인 ‘襄’ 역시 “영토를 넓히되 덕을 갖추었다(辟地有德)”라는 의미항목 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 노고를 많이 했다(甲冑有勞)”라는 의미항목도 가지고 있다.<sup>19)</sup> 이 역시 앞의 ‘武’와 마찬가지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힘든 일이 많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혹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가 시호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전통적으로 나쁜 의

17) 戰國시대 楚나라에도 ‘幽王’이 있다.

18) ‘武’를 시호로 쓴 군주는 다음과 같다. 武公(宋,春秋), 武公(燕,春秋), 武公(衛,春秋), 武公(鄭,春秋), 武公(秦,春秋), 武公(晉,春秋), 武成王(燕,戰國), 武靈王(趙,戰國), 武王(秦,戰國), 武王(楚,春秋), 武子(韓,戰國), 武侯(魏,戰國)

19) ‘襄’을 시호로 쓴 군주는 다음과 같다. 襄公(魯,春秋), 襄公(宋,春秋), 襄公(燕,春秋), 襄公(衛,春秋), 襄公(鄭,春秋), 襄公(齊,春秋), 襄公(秦,春秋), 襄公(晉,春秋), 襄王(魏,戰國), 襄王(齊,戰國), 襄王(韓,戰國), 襄子(趙,戰國), 悼襄王(趙,戰國), 頃襄王(楚,戰國), 莊襄王(秦,戰國).

미를 갖는 시호, 즉 ‘악시(惡諡)’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 시호에 담긴 의미가 나쁜 의미의 의미항목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항목 중 어떤 한 가지 의미항목이 부정적인 평가의 의미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惡諡의 존재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전통시기에도 시호를 정하는 방법인 諡法과 시호의 의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沈約 《諡法》, 賀琛 《新諡法》, 王彥威 《續古今諡法》, 蘇洵 《諡法》, 王圻 《諡法通考》, 劉長華 《漢晉迄明諡彙考》 등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지식인 사이에서 시호가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시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되었고 이는 王受寬 《諡法研究》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sup>20)</sup>

그럼에도 시호와 시법에 대한 그동안 많은 연구는 시호의 기원과 문화적인 의미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뿐 본고의 주된 관심 분야인 부정적인 시호,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의 등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塗白奎의 <西周王號無惡諡說>만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塗白奎는 서주 金文에 근거하여 서주 시대 13왕의 시호는 모두 美稱이며 ‘幽’, ‘厲’ 조차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塗白奎의 주장이 ‘幽’, ‘厲’ 두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시호에 쓰인 단어 전반에 대해 조목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춘추시대의 시호가 나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그의 기본적인 주장에 동의한다.

시호가 과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 宋代 정초(鄭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通志》의 <諡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살아서는 이름이 있고 죽어서는 시호가 있다.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을

20) 시호와 시법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趙東, <20年來諡法研究綜述>을 참고할 것.

구별하려는 것이고 시호는 죽은 사람을 구별하려는 것이니 애초에 선악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호를 이름 대신 썼으니, 이름도 오히려 감히 부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쁜 시호를 더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한 것은 신하나 아들이 마음 편안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sup>21)</sup>

정초에 의하면 시호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을 구별해주는 것일 뿐 선악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름을 대신한 이유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이므로 나쁜 시호로 죽은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幽’와 ‘隱’ 두 시호를 쓴 군주의 사례를 들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幽’는 감추다는 뜻의 ‘隱’과 나란히 쓰이는 명칭이다. 周의 幽王은 犬戎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魯나라 隱公은 羽父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러한 것은 신하가 차마 말할 수 없으므로 幽와 隱으로 이름을 불렀으니, 대단히 애통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니 (幽자에) 어찌 막혀서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겠는가? 논어에는 ‘공자께서는 온화하지만(溫) 엄숙하고(厲) 위엄이 있지만(威) 사납지 않으며(不猛) 공손하지만(恭) 자연스러웠다(安).’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厲’는 ‘安’과 나란히 언급한 덕이므로 ‘厲’에 대해 ‘而’를 써서 말하였고 ‘猛’자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猛’자에 대해서는 ‘不’을 더하였다. ‘厲’는 나쁜 뜻이 아니니 어찌 포악하고 어버이도 없는 듯 행동했다는 뜻이 있겠는가? 厲왕이 잘못을 했지만 여왕에게 포악하고 어버이도 없는 듯 행동했다는 이름을 갖게 만든다면 그 후손인 宣王은 효자가 될 수 없다. 유왕이 잘못을 했지만 幽王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는 이름을 갖게 만든다면 유왕 뒤에 군주를 했던 晉나라 文侯나 鄭나라 武公은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없다.<sup>22)</sup> 주나라의 법제에는 처음에 나쁜 시호가 없었으니 시호 중에서 나쁜 것이 있다는 말은 후인들이 세운 이론이다.<sup>23)</sup>

21) <諡略·序論一> : “生有名, 死有諡. 名乃生者之辨, 諡乃死者之辨, 初不爲善惡也. 以諡易名, 名尙不敢稱, 況可加以惡諡乎? 非臣子所安也.”

22) 晉나라 幽侯 뒤에 文侯가 군주가 되었으며 鄭나라 幽公 뒤에 武公이 군주가 되었다.

정초의 논리에 의하면, 우선 ‘幽’는 군주의 불행한 죽음을 감추어주기 위해 쓴 말이다. 즉 ‘幽’는 원래 ‘그윽하다’, ‘숨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그 의미를 따라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군주를 예들려서 지칭했다는 것이다. 또 논어의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 ‘幽’는 문장 구조상 ‘安’, ‘不猛’과 동일한 위치에서 공자의 덕을 지칭한 말이므로 절대 부정적인 나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 ‘幽’를 부정적인 나쁜 의미의 시호로 썼다면 그 후대의 왕은 효성스러운 후손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나라에서 시호를 정하는 제도에 처음에는 나쁜 시호를 정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우리에게 알려진 나쁜 시호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초는 나쁜 시호란 없는 것이므로 시호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아예 시호를 정해주지 않은 경우라고 말한다.

諡法에 의하면, 나쁜 시호로는 桀이나 紂보다 나쁜 것이 없으며, 그 다음으로는 桓, 靈이 나쁜 것이며 그 다음은 幽, 厲가 나쁜 것이다. 이것은 고금에 모두에게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내 견해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桀과 紂는 이름일 뿐 시호가 아니다. 이름은 살아있을 때 부여된 것이고 죽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夏나라 말기와 殷나라 초기에는 아직 시호가 없었으므로 桀은 시호가 아니다. 殷나라 말기와 周나라 초기에는 비록 諡法이 있었지만 시호를 받게 되면 영예로운 것이고 받지 못하면 욕이 된다. 紂라고 이름 불렀다는 것은 모욕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sup>24)</sup>

23) <諡略·序論三> : “幽者, 隱之竝名也. 周幽王喪於犬戎之禍, 魯隱公卒於羽父之難, 皆臣子所不忍言, 故以幽隱命之, 痛惜之甚也. 豈有壅遏不通之意乎? 語曰: ‘子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厲與安竝德, 故於厲言而, 猛則異於是, 故於猛言不. 厲非惡也, 豈有暴虐無親之義乎! 厲王過矣, 使厲王而有暴虐無親之名, 則宣王不得爲孝子. 幽王過矣, 使幽王受壅遏不通之責, 則晉文侯, 鄭武公不得爲良臣. 成周之法, 初無惡諡. 諡之有惡者, 後人之所立也.”

24) <諡略·序論三> : “按諡法, 惡諡莫如桀紂, 其次莫如桓靈, 其次莫如幽厲, 此古今之所聞也. 以身所見皆不然. 桀紂是名耳, 非諡也. 名者生之所命, 而非死之所加也. 當夏之季, 當殷之興, 則未有諡. 桀非諡也. 當殷之季, 當紂之興, 雖有諡

정초에 의하면 시법에 근거하여 나쁜 시호로 알려진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모욕은 시호를 받지 못하고 이름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호가 없었던 시대 ‘桀’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른 것은 차치하고 시호가 생겨난 뒤의 시대에 살았던 ‘紂’임금이 죽은 이후에도 본래의 이름 그대로 부르게 된 것이 가장 모욕이 큰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전국시대 제후국들이 秦나라에 의해 병합된 이후 각 제후국의 마지막 군주는 시호를 받지 못한 채 이름만으로 역사에 남아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후에도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 더 치욕스러운 것이라는 정초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초는 전통시대에 나쁜 의미의 시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노력했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후대에 와서도 나쁜 시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인용되었다. 조선시대 李翼 역시 孟子가 나쁜 시호로 정해진 ‘幽’와 ‘厲’를 후손들이 바꿀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시법해>에 의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경우에 ‘厲’라고 하고, 막혀서 통하지 않은 경우에 ‘幽’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나쁜 이름은 효자가 차마 선친께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호라는 것은 죽었을 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살았을 때 행한 일이 끝나면 이때에야 비로소 이름을 피하고 바꾸어 부르게 되는데 이는 공경하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큰 행동에는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동에는 작은 이름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이름을 불러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 때에 큰 행동과 작은 행동은 큰 절개와 작은 절개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나쁜 행동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다. 예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조 중에는 공경할만한 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고 미워할만한 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없는데, 그를 부를 때에는 의리상 공경할만하다고 부르는 것이지 미워할만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실로 효자와 자손의 뜻이다. 만약 선조에게 악함이 있다고 하여 자손이 이것을 드러내어 이름 부르고 후세에 드러내는 일이 어찌 있

法, 然得諡爲榮, 不得諡爲辱. 名之以紂, 辱莫大焉.”

을 수 있겠는가?<sup>25)</sup>

이익의 주장에 의하면, <시법해>에서 말한 ‘大行(큰행동)’과 ‘小行(작은 행동)’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절개와 작은 절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법해>에 근거해도 애초에 나쁜 시호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선조이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지만 의리상 긍정적으로 불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선조의 부정적인 악한 측면을 부각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논지는 鄭樵의 것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시법해>에서 말한 ‘大行’과 ‘小行’을 생전 행위의 선악이 아닌 행위의 규모로 해석하고자 한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시법해>라는 책이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에 고대 시호 제정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언급한 책이라는 점에서, <시법해> 내에서 각각의 시호를 설명할 때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해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나쁜 시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선왕에게 그 행동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의미의 시호를 제정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는 제후의 시호 중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해석하려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전국시대를 지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쁜 시호로 알려진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대 제후의 시호에 쓰인 단어들은 대부분 다의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후에게 부여된 시호가 그 단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항목 중 어떤 것에 해당되며 또한 그것이 과연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단어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

25) 《孟子疾書》：“按諡法，殺弑無辜曰厲，壅遏不通曰幽，此惡名，非孝子之所忍加於父者也。諡者，死於易其名也，生事既畢，於是焉，始諱易之，所以敬也。故曰，大行受大名，細行受細，名之浮於行也，大行細行，猶言大節細節，非謂惡行而亦稱之也。記曰，為先祖者，莫不有美焉，莫不有惡焉，銘之義稱美而不稱惡，此實孝子慈孫之意也。若先祖有惡，而子孫揚以名之，用暴於後世，安在乎。”

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추시대 공자 생전의 단어 의미와 전국후기의 단어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후대 군주에 의해 결정되는 선대 군주의 시호는 결국 선대 군주에 대한 후대 군주의 평가인 것이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이 결부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 IV. 단어의 다의성과 부정적 의미의 시호

고대 중국어 단어는 대부분 다의어라고 말할 수 있다. 시호에 쓰인 단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법해>에 시호를 설명하면서 나온 단어 중 가장 많은 의미항목을 제시한 것은 ‘恭’으로 모두 10개의 의미항목이 보인다.<sup>26)</sup> 물론 의미항목이 많다고 해서 그 단어를 시호로 사용한 군주가 가장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시법해>에서 제시하는 한 단어의 의미항목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시호에 쓰인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의 시호라고 알려진 군주들에 비하여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는 앞서 정초가 언급한 것처럼 시호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이는 역으로 시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춘추전국시대 주요 국 제후 중에는 시호를 받지 못한 채 이름만 전하는 군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假-魏,戰國08 / 建-齊,戰國11 / 黔牟-衛,春秋06 / 邲敖-楚,春秋12 / 起-衛,春秋19 / 堵敖-楚,春秋06 / 緡-晉,春秋08 / 負芻-楚,戰國11 / 蚡冒-楚,春秋03 / 霄敖-楚,春秋02 / 安-韓,戰國12 / 若敖-楚,春秋01 / 子亶-鄭,

26) <시법해>에서 ‘恭’을 설명한 의미항목은 다음과 같다. “敬事尊上”, “尊賢貴義”, “尊賢敬讓”, “既過能改”, “執事堅固”, “安民長悌”, “執禮敬賓”, “芘親之門”, “尊長讓善”, “淵源流通”.

春秋05 / 子嬰-鄭,春秋06 / 遷-趙,戰國12 / 出子元-秦,戰國06 / 噲-燕,戰國07 / 喜-燕,戰國12

이들은 대부분 각국의 마지막 왕이거나 재위 기간 중 어떤 연유로 쫓겨난 경우, 혹은 초나라의 경우처럼 중원의 국가로 인정받기 전의 군주 등이다.

이제 시호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시호의 의미가 부정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우리는 춘추전국시대 제후의 시호에 쓰였으면서 동시에 <시법해>에 제시된 시호로 39가지를 보았다. 이 중 약간이나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호로는 ‘悼’, ‘厲’, ‘潛’, ‘殤’, ‘哀’, ‘靈’, ‘幽’, ‘隱’의 여덟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 ‘悼’, ‘殤’은 요절한 군주에게 부여하는 시호이며, ‘哀’는 선친이 일찍 돌아가신 군주에게 부여하는 시호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정초의 논의에서 보듯이 ‘幽’와 ‘隱’ 역시 전쟁 등의 불의의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난 군주에게 부여하는 시호이고 ‘厲’ 역시 원래부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단어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sup>27)</sup> 그렇다면 남은 ‘潛(潛)’, ‘靈’ 두 가지 시호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법해>에는 ‘靈’에 대해 “죽어서 뜻을 완성함(死而志成)”,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만 영토를 줄어들게 하지는 않음(亂而不損)”, “귀신을 잘 앎(極知鬼神)”, “이름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음(不勤成名)”, “죽어서 귀신의 능력을 보여줌(死見鬼能)”, “귀신에게 제사지냄을 좋아함(好祭鬼神)”이라는 여섯 가지 의미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사실 ‘靈’자의 본래 의미에 ‘귀신’, ‘죽은 이의 혼백’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법해>에서 그와 연관된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漢語大詞典》의 ‘靈’자 항목에는 모두 21개의 의미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한 의미항목은 ‘무당’, ‘신령

27) 金文의 용례를 통해 ‘幽’와 ‘厲’가 西周시기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塗白奎 <西周王號無惡諡說>의 주장도 이 부분에서 참고할 만하다.

스러움', '귀신', '귀신의 기운' 등이어서 <시법해>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12번째 의미항목에서 '총명함', '사리에 밝다'라는 뜻을 제시하면서 《莊子·天地》의 “大愚者終身不靈(크게 어리석은 사람은 종신토록 사리에 밝지 못하다)”라는 구절을 들고 있고, 17번째 의미항목에서는 '복', '행운'이라는 뜻을 제시하면서 《左傳·隱公3年》의 “大夫之靈”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진시대의 '靈'자에 귀신이나 무당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신령스러움에서 나오는 '복'이나 '총명함'이라는 뜻이 생겨나 쓰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靈'이라는 시호를 현실적이지 않은 귀신의 문제에 얽매어 나라를 어지럽힌 군주에 대한 시호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潛(潛)'에 대해 <시법해>는 “나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남(在國逢難)”,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함(使民折傷)”, “나라에 우환이 연이어 짐(在國連憂)”, “화와 난리가 일어남(禍亂方作)” 등의 네 가지 의미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潛(潛)'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법해>는 그 의미를 따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漢語大詞典》에 의하면, '환란', '혼란'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엽게 여기다', '근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左傳·昭公元年》에는 “吾代二子潛矣.(내가 그대를 위하여 근심한다)”라는 구절에 대해 孔穎達이 “潛, 憂也”라고 설명한 것과, 《廣雅·釋詁》에서 “潛, 愛也”라고 설명한 것이 그 예에 속한다. 즉 '혼란스럽다', 혹은 '국가에 환란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그러한 상황을 가엽게 여기다', 혹은 '근심하다'라는 뜻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단어 역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그 내면에 다의적인 속성상 중립적인 의미 역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이상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하

28) '潛'을 시호로 하는 제후가 潛王(齊,戰國09), 景潛王(魏,戰國07) 둘 인데, 이 둘 모두 전국후기 제후라는 점에서 전국후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는 시호로 쓰인 단어는 그 자체로 다의적이며 그 의미항목 중에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시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대부분 유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호에 담긴 의미를 추구할 때에도 유가적인 사상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유가가 국가와 사회의 공통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아 獨尊 儒術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漢나라 이후라는 점에서 춘추전국시대 제후에 대한 평가를 유가적인 측면만으로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호로서 내려지는 제후에 대한 평가는 후대 제후가 가진 정치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군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정통적인 계승절차를 밟은 군주에게서는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앞선 군주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국가가 망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에는 시호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앞서 우리는 고대 중국 제후의 사후 명칭인 시호를 살펴보면서 나쁜 의미를 갖는 시호인 惡諡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앞선 군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시호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누지만, 실상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호를 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시호는 그 시호에 쓰인 단어가 갖고 있는 다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단어의 의미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 갖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립적인 의미로 파악해야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만 유가가 국가적인 이념으로 정착된 漢代 이후에는, 원래 중립적으로 부여된 일

부 시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시호 중에는 나쁜 시호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이 부분은 추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시대 모든 시호에 대한 연구와 현대 이후 시호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 때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 參考文獻 >

- (漢)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臺北: 天空書局), 1987.  
 (唐) 陸德明 撰, 《經典釋文》(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明) 顧炎武 撰, (清) 黃汝成 集釋, 《日知錄集釋》(臺北: 世界書局), 1974.  
 (宋) 鄭樵, 《通志二十略》(臺北: 世界書局), 1970.  
 (清) 陳立 撰, 《白虎通義證》(北京: 中華書局), 1994.  
 (清) 郝懿行 撰, 《爾雅義疏》(臺北: 中華書局), 1972.  
 (朝鮮) 李翼, 孟子疾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韓國經學資料集成), 1991.  
 (朝鮮) 丁若鏞, 全州大湖南學研究所 譯, 《論語古今註》(서울: 驪江出版社), 1989.  
 D.A.Cruse, 임지룡 외 옮김, 《어휘의미론》(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89.  
 顧德融·朱順龍 著, 《春秋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唐元發, <《逸周書》成書於戰國初期>, 《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7: 3, 2006.11.  
 塗白奎, <西周王號無惡諡說>, 《中國史研究》, 2005년 제4기.  
 杜建民·崔吉學, <論諡號文化內涵的演變>, 《史學月刊》, 1994년 제5기.  
 潘敏·孫全滿, <商王廟號及商代諡法的推測>, 《河北學刊》, 1995년 제1기.  
 師寧, <論生稱諡及諡法起源問題>,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4

년 제6기.

- 司艾華, 劉偉, <說滕文公之‘文’>, 《棗莊師範專科學校學報》19: 6, 2002.12.
- 常金倉, <周公制諡公案及文獻與考古發現的契合>, 《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西安)》17: 2, 2000.6.
- 薛金玲, <《逸周書·諡法》時代辨析>, 《西安石油學院學報(社會科學版)》12: 3, 2003.8.
- 沈在箕 外著, 《意味論序說》(서울: 集文堂), 1984.
- 楊寬 著, 《戰國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3.
- 葉正渤, <《逸周書》語詞研究>, 《古籍整理研究學刊》2002년 제5기, 2002.9.
- 王連龍, <近二十年來《逸周書》研究綜述>,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8년 제2기, 2008.4.
- 王受寬, 《諡法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饒小飛, <漢英人名姓氏的文化心態·來源與命名習俗探微>, 《涪陵師範學院學報》19: 4, 2003.7.
- 劉仕平, <諡法的起源·種類及研究諡法的意義>, 《武警工程學院學報》17: 1, 2001.2.
- 林德春, <中國古代諡號與諡法評述>, 《松遼學刊(社會科學版)》1996년 제1기.
- 蔣紹愚 著, 《古漢語詞彙綱要》(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 趙東, <20年來諡法研究綜述>, 《綏化學院學報》27: 2, 2007.4.
- 周大璞 著, 정명수 외 옮김, 《훈고학의 이해》(서울: 동과서), 1997.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 黃懷信 外撰, 《逸周書彙校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中文提要>

本論文旨在理解中國古代的諡號, 特別是春秋戰國時期諸侯的諡號並試

圖從語義學角度考察那些具有貶義的諡號。

諡號是中國古代對過世的君王、貴族等的稱呼，一般根據死者生前事跡而定。這是東方特有的一種制度。諡號一經決定便不能改換，因此，諡號具有節制生前行爲，誘導行善的作用。

本文通過調查春秋戰國時期主要諸侯國君主的諡號，與可謂諡號之代表作的《逸周書·諡法解》的內容做了比較，然後選擇了那些《諡法解》中有解釋並用做諸侯諡號的詞語爲對象考察了語義。用做諡號的詞語，其語義可分爲肯定、否定、中性三種類型。難以讓人理解的是爲尊重死人而賦予的諡號怎麼會具有貶義？經考察我們發現，具有貶義的諡號，其詞語可能是個多義詞，既可用於褒義，也可用於貶義。不過，漢朝以後，儒家作爲國家理念，人們對一部分只具有中性意義的諡號也賦予了貶義。也許這就是我們現在對一些諡號做否定解釋的根源。

주제어 : 春秋戰國時代, 諸侯, 諡號, 惡諡, 鄭樵, 多義性

